

골·골·골...평점 10점 ‘퍼펙트 손흥민’



토트넘의 손흥민이 1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16-2017시즌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8강전 밀월과 홈 경기에서 세번째 골을 터트린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국 진출 첫 헤트트릭...FA컵 8강 밀월전 6-0 견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뛰는 손흥민이 영국 진출 이후 처음으로 헤트트릭을 달성하고 어시스트까지 한 개 기록하는 맹활약을 펼쳤다.

지난달 19일 풀럼과 FA컵 경기 이후 약 3주 만에 선발로 나온 손흥민은 1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16-2017시즌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8강전 밀월과 홈 경기에서 혼자 세 골을 넣고 도움 1개를 보태 토트넘의 6-0 완승을 이끌었다.

1-0으로 앞선 전반 41분 손흥민이 2-0을 만들었다. 페널티 지역 오른쪽 모서리 부근에서 강력한 왼발 중거리포로 밀월의 골문을 열었다.

손흥민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골을 넣은 것은 1월 28일 위컴비와 FA컵 경기 이후 약 한 달 반 만이다.

올 시즌 12번째 골로 기세를 올린 손흥민은 후반 9분에 한 골을 더 넣었다. 후반에서 키어런 트리피어가 길게 올려준 공을 골키퍼와 일대일로 맞선 상황에서 그대로 오른발 슈트로 연결했다.

이후 후반 27분 델리 알리의 골로 4-0이

됐고 후반 34분에는 손흥민의 도움으로 빈센트 안첸이 한 골을 더 넣어 5-0으로 벌어졌다.

손흥민은 경기 종료 직전 기어이 헤트트릭을 달성했다. 왼쪽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그대로 왼발 발리슛으로 연결했고, 이 공은 골키퍼 다리 사이로 빠져나가며 극적인 이날 손흥민의 세 번째 골이 됐다.

경기 끝날 때까지 90분 풀타임 활약을 펼친 손흥민은 2015년 8월 영국 진출 이후 처음으로 한 경기에 세 골을 터트리는 헤트트릭을 달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7골, FA컵에서 6골,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1골 등 총 14골을 기록했다.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시즌 최다 골 기록도 14골로 늘렸다. 특히 1월 28일 위컴비와 경기에서 두 골에 이어 이날도 세 골을 몰아치는 등 FA컵 경기에서 유독 강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위컴비가 4부리그, 밀월은 3부리그 팀이라 토트넘이 일방적인 공세를 퍼부은 경기였다.

손흥민은 독일 레버쿠젠에서 뛰던 2015년 2월 볼프스부르크와 경기에서도 혼자 세 골을 몰아치며 헤트트릭을 만들어낸 바 있다. 이후 2년 1개월 만에 다시 유럽에서 한 경기 세 골을 만들어내며 정상급 스트라이커로서 자질을 입증해냈다.

/연합뉴스

손흥민 영국 진출 후 첫 헤트트릭

1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16-2017시즌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8강전 밀월과 홈 경기

경기 결과 토트넘 6:0 밀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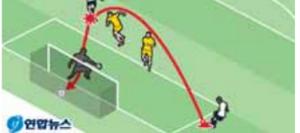
손흥민 강력한 왼발 중거리포 첫번째 골(전반 41분) 토트넘 1-0 앞선 상황



두번째 골(후반 9분) 2-0 앞선 상황



손흥민 크로스를 그대로 왼발 발리슛 세번째 골(후반 46분) 5-0 앞선 상황



/연합뉴스

“월드컵 최종예선 후반기 승리로 시작”

슈틸리케 감독 24명 발표

부상 기성용·곽태휘 합류

23일 중·28일 시리아와 일전

올리 슈틸리케 축구 대표팀 감독이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후반기 경기를 승리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슈틸리케 감독은 13일 서울 중구 KEB 하나은행 본점에서 23일 중국, 28일 시리아와 경기에 출전할 선수 24명의 명단을 발표하며 2연전을 앞둔 각오를 전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이번 경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중국과 경기 승리를 통해 이번 아시아지역 월드컵 최종예선 후반기를 승리로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은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 A조에서 3승 1무 1패로 2위를 달리고 있다. 이란이 3승 2무로 1위, 우즈베키스탄이 3승 2패로 3위다.

슈틸리케 감독은 “기성용, 곽태휘는 부상 회복 경과를 주말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이재성 역시 발타이 확실시됐지만 부상 때문에 낙마했고 대신 허용준을 새로 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상 중인 기성용, 곽태휘를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경험도 많고 리더십도 있기 때문에 100% 컨디션이 아니더라도 경기장 안팎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성 등 부상자들이 나오고 있지만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만일 기성용의 몸 상태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플랜 B’는 “대기 명단에 올린 김보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측면 공격수에 대해 “허용준을 새로 뽑았고 남태희, 구자철, 지동원 등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누가 측면에서 서게 될지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답했다.

이재성, 박주호를 제외한 이유로는 “소속팀에서 명단에 들지 못하는 상황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다. 대표팀은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뽑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지만 “이 선수들의 기량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소속팀에서 명단에 들고 출전 기회를 부여받는다면 다시 함께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슈틸리케 감독은 “권창훈은 중앙 지원이라 측면 보강을 위해 대기 명단에 올렸고 새 소속팀 적응도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슈틸리케호 대표팀 명단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6·7차전

FW	황희찬(전북) 이정협(울산 현대) 김신욱(수원)
MF	정우영(충청 리안) 고영진(알리안츠) 한국영(알리안츠) 손흥민(토트넘) 기성용(스완지 시티) 남태희(레리아) 구자철·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 허용준(전남)
DF	김기희(상하이 선화) 장현수(광저우 흥창호(광주)) 곽태휘(서울) 김민혁(시간도스) 김민우(수원) 이용·최철순·김진수(수원)
GK	권순태(가시마 인테르스) 김승규(빗셀 고베) 김동준(성남)

또 김기희, 장현수 등 중국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을 선발한 것에 대해 “시즌 개막 전까지 정상적인 준비 과정을 거쳤고 컨디션도 괜찮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국 리그 선수들의 명단 제외가 장기화하면 우리 대표팀 경기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골 결정력 뛰어난 ‘멀티 플레이어’

슈틸리케호 승선 전남 허용준

“지난해부터 눈여겨본 선수다.”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전남 드래곤즈의 2년차 공격수 허용준(24)이 슈틸리케호의 ‘새로운 황태자’ 자리를 노린다.

올리 슈틸리케 축구대표팀 감독은 13일 중국 및 시리아와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6, 7차전에 나설 24명의 대표선수 명단에 허용준의 이름을 포함했다.

허용준은 2011~2013년까지 U-20 대표팀에서 12경기에 나서 3골을 넣으며 유망주로 꼽혔지만, 이후 울림픽 대표팀이나 A대표팀과는 인연을 맺지 못했다.

전남 유스팀인 광양제철고 출신인 허용준은 2012시즌 전남에 우선 지명됐지만 대학 무대 경험을 위해 고려대에 진학했다. 허용준은 고려대의 핵심 공격수로 활

약하며 지난 2015년 추계 대학축구연맹전에서 팀의 우승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고려대를 졸업하고 2016년 전남 유니폼을 입은 허용준은 데뷔 첫 시즌 28경기에 나서 4골 3도움의 뛰어난 활약을 일찌감치 주전을 꿰찼다. 슈틸리케 감독이 허용준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도 지난해부터였다.

이재성(전북)이 정장이 골결정상으로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하고 이창용(크리스털 팰리스)도 출전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하자 슈틸리케 감독은 머릿 속에 넣어뒀던 허용준을 떠올렸다.

슈틸리케 감독은 12일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남과 상주 경기를 직접 보러 내려갔다. 슈틸리케 감독은 축구협회에도 광양 방문을 알리지 않았다.

허용준의 장점은 여러 포지션을 뛸 수 있는 전천후 플레이 능력과 뛰어난 골 결



정력이다. 허용준은 최전방, 측면, 중원 자리를 모두 소화할 수 있다.

허용준은 상주 전에 선발 출전해 전반 27분 빠른 왼쪽 측면 돌파로 페

체신의 슈팅을 때어냈고, 후반 26분 강력한 오른발 발리슛을 시도한 게 크로스바를 살짝 넘기도 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허용준의 과감한 측면 돌파와 정확한 슈팅 능력을 확인한 뒤 ‘첫 A대표팀 발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슈틸리케 감독은 “이번 시즌 2경기만 보고 허용준을 뽑은 게 아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선수다. 그래서 어제 직접 경기장에서 허용준을 살펴봤다”며 “볼을 가지고 있을 때 플레이가 아주 인상적이다. 끝까지 고민하다가 이재성도 다치는 상황이 발생해 허용준을 뽑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